

호태왕비의 보호와 현상태 (好太王碑의 保護와 現狀態)

안 희 균

자료조사자 : (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

장 현 덕

(문화재연구소미술공예연구실)

본고(本考)는 중국(中國) 길림성(吉林省) 집안(集安)에 위치(位置)한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에 대하여 집안박물관(集安博物館) 부관장(副館長) 경철화(耿鐵華)가 연구발표(研究發表)한 보고서(報告書)이다.

문화재연구소에서는 '92. 10. 11-10. 25까지 고구려문화유적(高句麗文化遺蹟) 보존상태(保存狀態) 등의 조사(調查)를 위해 관계직원(關係職員)이 중국(中國)에 출장(出張)하였다. 집안(集安)에서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에 대한 조사(調查)를 실시(實施)하고 이와 관련된 중요(重要)한 자료(資料)가 입수(入手)되어 현지에서 연변대학 고적조사연구소와 함께 번역문을 작성하였는데 이를 원문(原文)과 함께 소개(紹介)하고자 한다.

머리말

호태왕비는 고구려 제20대 장수왕이 그의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廣開土境 平安 好太王)”을 위하여 세운 기공비(紀功碑)이다. 진(晉)나라 안제(安帝) 의희(義熙) 10년(서기 414년)에 국내성(오늘의 길림성 집안현성)에서 동북쪽으로 4km쯤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다. 자연계와 인류사회의 갖은 풍상을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미 1570여년 동안 여기에 우뚝 서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탁본을 두드려 뜨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벌써 한 세기가 지났다.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호태왕비의 보호와 현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와 관계되는 정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1

광서(光緒) 초년에 사람들은 황막한 풀 숲에서 호태왕비를¹⁾ 발견하였다. 발견당시 이곳 북쪽은 우산(禹山)이고 동쪽은 용산(龍山)인데 산세는 비교적 평퍼짐하고 잡초와 수목이 우거져서 사람들의 자취가 드물다. “비석의 표면은 푸른 이끼에 묻혀있다”²⁾ 청(淸)

1) 호태왕비가 다시금 발견된 시간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세가지 설이 있다. 왕건군(王健群)은 “광서(光緒)원년 혹은 2년 좌우”라 하였고 경철화(耿鐵華)는 “광서 3년”이라 하고 유영지(劉永智)는 “광서 6년”이라 하였다.

2) ,7) 고섭광(顧燮光) : <몽벽이석연(夢碧菴石硯)>

조말엽, 민국초엽의 섭창치(葉昌熾), 담국환(談國樞), 장연후(張延厚) 등이 모두 호태왕비가 발견된 초기에 푸른 이끼에 묻혀 있는 정황을 기록하고 있다.³⁾⁴ 50년대, 80년대에 전후로 비석결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면담한 사람들의 기록에는 모두 “비석 위에 청태는 아주 두터웠다”고 썼거나 “비석위에 청태가 가득 자랐다”고 한 기억을 적어놓았다. 이런것은 실제 정황에 부합된다. 호태왕비는 각력옹회암(角礫癡灰巖)을 쪼아서 만든 것으로서 돌의 질은 성기고 표면은 요철(凹凸)상태였으며 청태가 아주 쉽게 자랄 수 있었다. 이런 청태는 흑선(黑蘚 *Andreaea*)과 회선(灰蘚 *Hypnum*)류에 속하고 자흑색 혹은 회흑색이 드러나고 노출된 화강암과 축축한 바위들 표면이나 썩은 나무에 돌아나는데 생명력이 몹시 강하다. 이렇게 두터운 선태가 호태왕비의 표면을 짝 붕괴했으므로 천년의 바람비를 막아 비 표면의 풍화를 어느 정도 방지했으며 옛 비석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할 것이다. 두터운 선태가 비석의 문자를 거의다 파묻었기에 탁본을 뜨기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옛 비석을 발견한 후에 선태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일대 난제로 되었다. 시초에는 마분(馬糞, 말똥)을 비석 표면에 발라놓고 마분이 마른 다음에 불로 태워버림으로써 선태는 제거되었지만 비석은 국부적으로 불에 튀어 이그러지게 되었다. 이는 호태왕비가 발견된 후에 첫번째로 겪은 엄청난 파괴이다.^{5,6,7,8)} 조사에 의하면 호태왕비 부근에 거주하던 천부(初天富, 즉 초봉도<初鵬度> 1847~1918)는 적어도 1883년(광서 9년 계말(癸未))부터 비석탁본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한다.^{4,9)} 불로써 이끼를 제거한 것은 이 보다 앞섰을 것으로 보인다.

초천부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초균덕(初均德)도 비석탁본업을 계승하였다. 두세대의 사람이 60년 동안이나 비석탁본을 서로 이어왔다. 그후로는 또 적지 않은 사람이 여러 차례 탁본하였다. 맹목적으로 탁본을 했기에 탁본과 석문(釋文)의 혼란을 조성하였고 더욱 엄청난것은 직접적으로 옛 비석의 안전을 해롭힌 것이다. 각력옹회암의 석질이 성긴 데다가 불로 태워서 갈라진 틈이 생겼으며 자주 두드리는 바람에 글자의 모서리가 민듯 하게 갈라지고 심지어 탈락되고 부스러져 떨어졌다.

대략 1900년 전후에¹⁰⁾, 초천부가 비석면의 울퉁불퉁한데와 문자 둘레에 석회를 바르기 시작했다. 그후 해마다 석회로 보수하였다. 문자가 똑똑하지 않은 곳은 석회로 채우고 그려넣어 비문가운데 일부는 필획이 많아졌거나 적어졌으며 심지어는 거짓글자(위자(僞字))를 적어놓은 것도 있다. 석회를 발랐거나 글자를 수선 보충 해넣는 일은 탁공(탁본을 뜨는 장인들-역자주)들의 역사 및 옛비석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무지에 의한 것이니 지나치게 비난할 것이 못된다. 그러나 이로부터 빚어진 손실 및 혼란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1905년에 일본 사람 시라도리 히코요시(白鳥唐吉)는 호태왕비를 일본으로 실어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비석에 새겨져있는 조선남부의 신라, 백제, 임나 3국은 일본의 식민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시라도리 히코요시는 비록 학자이기는 하지만 그가 제안한 생각은 일본군국주의 분자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1907년 이후에 일본침략자들은 군함으로써 이 비석을 일본으로 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3) 섭창치(葉昌熾)의 <어석(語石)>; 담국환(談國樞)의 <수찰(手札)>; 장연후(張延厚)의 <발어(跋語)>

4), 9) 집안 박물관 당안재료.

5) 섭창치의 <어석(語石)>

6) 담국환의(談國樞)의 <수찰(手札)>

8) 장연후의(張延厚)의 <발어(跋語)>

10) 관야정(關野貞)의 <만주 집안현과 평양부근의 고구려 유적>, <고고학잡지(考古學雜誌)>제5권 제3,4호(1914년).

끝내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실시하지는 못했다.¹¹⁾

탁본의 유행전파, 고증해석, 연구가 끊임없이 계속됨에 따라 호태왕비의 가치 및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27년에 집현전 유지들이 자금을 모아 호태왕비비정(碑亭)을 세우기 시작하여 1928년에 준공하였다. 호태왕비비정은 2층 목조 결구의 6각 차첨식(鱗尖式)이었다. 여섯가지 원두형 나무기둥으로 지탱하고 정자 꼭대기는 철제의 조롱박 형상이고 꼭대기의 기와는 얇은 철판을 압연하여 만들었는데 상하층을 모두 밖으로 1.10m 높이의 목조 보호난간을 만들었으며 상하층 사이에 목조 사다리를 놓아 오르내리게 하였다. 당시의 현지사 유천성(劉天成)이 <호태왕비정(好太王碑亭)>이란 편액을 썼다. 비정의 복원은 일면 관람자들의 관찰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더 중요한것을 옛 비석이 비바람에 손상을 받지 않게끔 가리워주어 호태왕비를 비교적 훌륭한 보호를 받게끔하였다.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의 세례를 받고난 호태왕비는安然히 우뚝 서 있으며 집안현의 주민들과 각계인사들은 비바람에 허덕이던 구중국에서 인력과 물력을 다하여 호태왕비를 보호함으로써 고대 비각예술(碑刻藝術)의 아름다운 보물을 완전무결하게 보존하여왔다.

2

새중국이 성립되어 주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자 전국의 문물고적(文物古蹟 - 문화재를 말함 - 역사주)도 진귀하게 보이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었다. 호태왕비는 새생명을 얻게되었다. 집안현 문화과(集安縣 文化課)는 고구려시대의 문물고적에 대한 보호관리사어를 맡아서 호태왕비의 역사와 현상태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그후로 부근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통하여 그간의 정황을 알게 되었다.

1961년에 호태왕비를 비롯한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을 국무원에서는 전국 제1차본회의 문물보호단위로 공포하였다. 이어서 집안현 문물관리소가 설치되었고 동구고분군과 호태왕비의 보호관리사업을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국무원에서 반포한 문물보호관리잠행조례(文物保護管理暫行條例)에 근거하여 관리소를 세우고 사업을 적극 전개하였다.

1962년 3월에 집안현 문물보호관리소는 호태왕비에 대하여 전면적인 현지조사와 실측을 진행하여 1천 5백여년의 풍화를 거쳐 박식(剝蝕)되고 특히 발견된 후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불에 살리우고 맹목적인 추탁(推拓)에 의하여 빚어진 손상이 심분 엄중하고 비석몸체(비체(碑體))의 여러 군데 갈라진 틈과 부스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석부석한 조각 등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인 정황은 아래와 같다.

제1면(동남), 왼쪽 아랫모에 부석부석한 면적이 40×16cm, 우측 아랫쪽에 끊어진 상태의 갈라진 틈의 길이가 90cm, 좌측에 아래로부터 86cm되는 곳에 비스듬이 갈라진 틈이 60cm, 우측 아래로부터 85cm 되는 것에 비스듬이 갈라진 틈이 50cm, 아래로부터 2m 되는 것에 가로 갈라진 틈이 1.06cm, 갈라진 틈이 제일 넓은 곳은 5cm, 깊이는 5~15cm로서 일정하지 않으며, 아래로부터 2.85m 되는 곳에 위로 향해 경사진 큰 틈이 2.20cm 되고 제일 넓은 곳은 3.5cm 인데 이 갈라짐 틈은 제2면(서남)과 서로 통하는데 위태로움이 아주 크다. 갈라진 틈의 왼쪽 끝에 제일 넓은 곳은 지난날에 불에 살리울 때 석재가 튀면서 남긴 흔적이다. 맨꼭대기의 우측에는 반원형으로 부스러져 갈라진 틈의 길이가

11) 유영지(劉永智)의 <호태왕비에 대하여 정론되는 문제>, <동북사연구(東北史研究)>제1집.

1.30m 된다.

제2면(서남), 좌측에 아래로부터 위로 향해진 세로 갈라진 틈이 1cm, 갈라진 틈의 하부 너비는 2-3cm이다. 가운데에 아래로부터 2.80m쯤 되는 곳에 위로 향하여 경사진 큰 틈의 길이는 2.35m 인데 제1면의 갈라진 틈과 서로 통하며 제일 넓은 곳은 40cm나 된다. 꼭대기에 세로 생긴 틈의 길이는 1.60cm 윗부분의 넓이는 2cm이다.

제3면(서북), 좌측의 꼭대기로부터 65cm 되는 곳에 가로생긴 부석부석하게 갈라진 틈의 길이는 90cm, 우측에 비스듬히 갈라진 틈이 있는데 길이가 1.90m되고 곁에는 부석부석하게 갈라진 틈이 있는데 그 길이가 65cm나 되고 틈의 아래로 90cm 되는 곳에 60cm쯤되는 부석부석 갈라진 자국과 조각상의 부석부석 갈라진 면이 있다.

제4면(동북), 아래로부터 오른쪽으로 한 갈래의 새로 생겨진 틈이 있는데 길이가 1.98m 이고 아래부분의 넓이가 2cm이다. 우측 중앙부위의 세로로 생긴 갈라진 틈이 있는데 길이가 3.34m이고 갈라진 자국은 넓지 않다. 꼭대기에는 새로 생긴 갈라진 틈이 있는데 길이가 1.05m 이고 상부에는 부스러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넓이가 2cm 이다. 오른쪽은 꼭대기로부터 70cm 되는 곳에 새로 생긴 갈라진 틈이 있는데 길이가 95cm나 된다.

꼭대기의 표면에는 세갈래의 갈라진 틈이 있다. 모두 서남으로부터 동북으로 향해졌는데中间的 한갈래 갈라진 틈은 제2, 제4면을 가로 꿰었는데 길이가 1.95m 이고 가의 제일 넓은 곳은 10cm 나 되고 깊이가 30~40cm 쯤된다. 다른 두곳의 갈라진 틈의 길이는 각각 1.43m와 75cm이다.

비교적 큰 이런 틈과 부서지는 면은 호태왕비의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더우기 제1, 제2 두개면을 관통하는 큰 틈과 꼭대기의 면을 가로 꿰뚫은 큰 틈은 비석 몸체의 윗부분을 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게 하였다.

집안현 문물보호관리소의 관계직원들은 정황을 곧 상급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한편 비석 몸체의 갈라진 틈과 부스러떨어지는 부분의 변화정황을 주시하여 관찰하였다.

1964년, 국가 문화부 문물국에서 이철원(李哲元), 이훈사(李勳士)를 지명해서 파견하여 길림성 문물관리위원회의 장영(張英), 장만정(張滿庭) 및 집안현문물관리소의 관계직원들도 “호태왕비 화학보호처리사업소조”를 구성하였다. 충분한 준비와 실내에서의 모의 실험을 거쳐서 성공적인 경험을 취득하였다

1965년 5월부터 보존처리를 시작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호태왕비의 비석표면을 깨끗이 하고 먼지를 털고 해방전에 갈라진 틈과 이즈러졌던 부분에 채워넣은 흰석회조각이 부스러져 떨어지는 것을 털어 없앴다.
2. 제1면과 제2면 중앙부의 구부러진 면에 불에 사리위 손상을 받은 부분을 접착하였다.
3. 갈라진 틈서리에 이미 풍화되어 구열된 표면을 쪼아 없앴다.
4. 관장하는 관(管)과 배기하는 구멍을 장치하였다.
5. 관장하기 전에 갈라진 틈을 봉폐하였다.
6. 갈라진 틈을 관장하여 접착했다.
7. 관장하여 접착한 후에 다듬었다.
8. 메타크릴산 에스테르류의 재료로써 표면을 봉폐보호(봉호(封護))하여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용한 약품은 주로 메타크릴산 에스테르 관장재료와 취합재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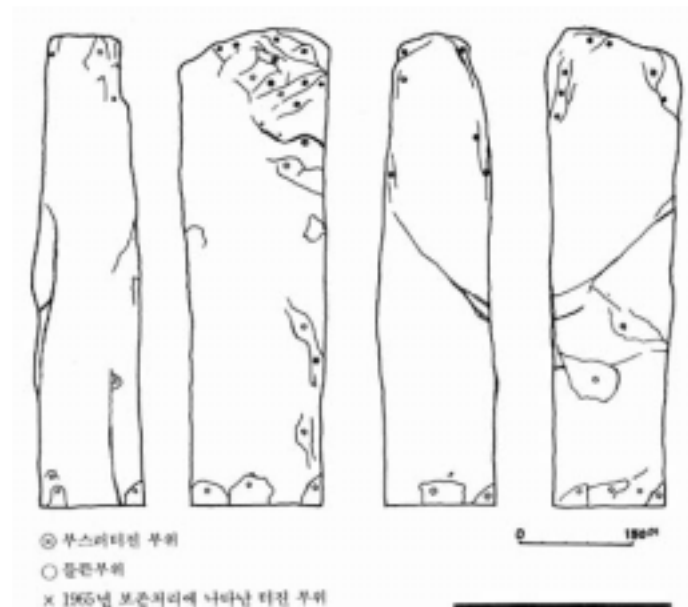
<메타크릴산 에스테르 관장재료>

메타크릴산 메틸 에스테르	51.2%
메타크릴산 부틸 에스테르	41.9%
메타크릴산	4.6%
디메틸 아닐린	0.9%
과산화디벤조일	1.4%

<메타크릴산 에스테르 취합재료>

메타크릴산 에스테르	14.3%
기타 용제(溶劑)	85.7%

전체적인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50여일이 걸렸다. 6월하순에 이르러 전부 끝을 맺었다. 관장공예행정에서 배기관을 통하여 관장체(灌漿體)가 활동해 이르는 위치 및 몇 갈래의 주요한 갈라진 틈에 부어넣은 관장액의 수량이 예상했던 주입 수량과 상동하다는 것을 보아 관장효과가 좋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더욱이 제1면과 제2면 중앙부에 위로 경사져서 비석몸체를 비스듬히 꿰어놓은 큰 틈은 봉폐한 효과가 좋아 관장정황이 심분 성공적이어서 관장후의 점착강도 역시 실험요구에 부합되어 틈이 커지는 추세 및 그것으로 인하여 초래될 붕괴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 점착제로 점착 봉폐한 부분이 표면수과 착색 및 고색(방고(倣古))처리를 거쳐 비석몸체의 바탕과 색깔이 기본상 일치하게 조화되었다. 비석 몸체의 표면을 화학적인 봉폐보호를 실시한 다음에 실물의 외관을 개변(改變)하지 않았고 기본상 광택이 없고 입체감이 더해졌다. 아울러 비(雨) 수분(水分)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침식과 풍화작용을 비교적 잘 방지할 수 있어 옛 비석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 부스러터진 부위
- 들뜬부위
- ×1965년 보존처리에 나타난 터진 부위



그림1 호태왕비의 부스러터지고 들뜬 상태

그후 10년후인 1974년 6월에 현의 문물관리소에서 제1차 화학처리후의 호태왕비의 정황을 검사하였다. 1965년에 화학처리한 비석몸체 상부의 비교적 크게 갈라진 틈은 변화가 크지 않고 이상적으로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부적으로 부스러 떨어지는 것과 붕괴처리가 효과성을 잃어버리고 네주위에 구부러진 모에 부석부석 부스러지는 것이 비교적 많았다. 특히 제3면의 정상부위에 일부는 이미 더 균한 면이 부스러 떨어지는 것이고 일부는 새로 부스러 떨어지는 것이다. 비석몸체의 아랫부분은 1965년에 화학처리한 후에 큰 변화는 없고 실험을 거쳐 약물의 처리효과는 60%이상이었다. 새로 나타난 정황이라면 비석밑굽이 모 4주에 20cm 높이 이내에 궁근 면이 35% 좌우 가까이 되는데 큰데는 60cm, 작은데라 해도 10cm이고 층의 두께는 0.2~0.5cm나 된다(도면 1참조). 호태왕비의 기저(基底)는 2.70×3.55m 되는 한덩이의 불규칙적인 화강암판석이다. 비석 몸체가 비교적 무거워서(37t)기저는 자체화중에 의해 세부분으로 갈라졌고 중앙부는 아래로 5cm 처졌다. 호태왕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호태왕비의 기초구조를 가일층 보충해야 했다. 세멘트 명대(明臺)를 쌓고 기초돌(기석(基石)) 서북쪽의 지층에 대한 과학적 탐사를 진행하여 기초돌 및 아래의 토층과 암반층의 정형에 대하여 기초적인 자료가 수집되었다. 호태왕비 토대는 두층의 기초돌로써 구성되었다. 첫층의 기초돌은 지표에 드러난 부분이 불규칙적인 변형을 나타내고 윗변의 두갈래의 갈라진 틈이 있는데 하나는 동남-서북향으로 균열되었는데 제4면의 비석밑선을 따라 벌어진 길이는 2.20m된다. 다른 한 갈래는 약간 동서향으로 균열되었는데 길이가 1.85m이고 제1면과 제2면의 굽인들이 모난데서 20cm 쯤 떨어져 있다. 기초돌 제일 두터운 곳은 63cm이다. 아래에는 13cm되는 황토사석층이다. 또 그아래는 제2층의 기초돌인데 50cm 두께의 하나의 통 화강암석판이다. 석판아래는 30cm 황사력층이다. 밑부분의 청백암석은 탐측한 결과 1.84m 좌우나 되는데 용산(龍山)의 암석층까지 이른다. 이런 쌓층의 기초돌 구조로 된 호태왕비는 기초가 견고하고 온정하고 탄성이 매우 풍부하여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저항력 혹은 감약작용(減弱作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호태왕비가

1570여년 지났지만 현재까지 잘 보존될 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인 것이다.

1976년 여름에 낡은 비석정을 헐어버리고 비석기초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하여 8×8m되는 세멘트 명대(明臺)를 설치하였다. 동시에 국가문물국에서 육수림(陸壽林), 채윤(蔡潤)을 파견하여 호태왕비에 대하여 화학약물 처리를 실시하였다. 마감으로 집안현 문물관리소의 주운대(周雲臺)가 인부들을 데리고 계속 처리하여 튼튼하게 고착하는 작업을 완수하였다. 3년후에 한차례 정밀검사하였으며 아울러 새로 나타난 갈라진 틈에 대하여 접착제로 더 튼튼하게 고착시켰다.

여러차례 보호성적 관장, 접착제 고착, 봉폐를 진행한 후로 호태왕비의 면모는 일신하였다. 비석폭대기의 부스러떨어진 부분은 기본적으로 접착되고 아울러 아주 훌륭하게 처리되었으며 하부의 비교적 크게 갈라진 틈도 관장하고 접착하였는데 효과가 아주 높다.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비석표면에 대한 청결처리를 거쳐 해방전에 발라놓았던 석회의 대부분이 풍화하여 탈락되었으므로 비문 및 행간계격(行間界格)이 똑똑하게 보이는 것이다.

3

호태왕비가 다시 발견되어 지금까지 비석정을 두차례 세웠다.

1927년에 세운 쌍층 목조 육각 찬첨식 비석정은 해방초기에 아주 심하게 훼손되어졌다. 1963년에 상하 두층의 보호난간을 다시 수선하고 다시 페인트칠을 하였으며 돌보와 기둥에 단청을 올리고 또 비석정 밖에 6변형의 보호책을 세웠다. 얼마후에 또 정자의 기둥사이에 철근을 넣고 연결시켜 견고하게 하였고 윗층 다락의 판자 모난 곳에 철제보호시설을 함으로써 비석정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하였다. 동시에 표지패(標識牌)와 설명패(說明牌)를 증설하였다.

1974년 비석정의 기둥이 썩어서 비석정이 서북쪽으로 5°쯤 기울어졌었다. 원래 통화·집안 도로가 비속몸체 서북쪽으로 3.5m 되는 곳을 지나가기에 차가 엇갈릴 때면 지어진 정자의 기둥을 스치는 경우가 있곤 하였다. 도로를 달리 돌리는 외에 견고화 조치를 강구하여 비석정이 계속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했다. 그러나 비석정은 세운지 이미 50년이 되어 오기에 건축의 수명주기(壽命周期)를 더 연장시킬 방법은 없고 기울어지는 추세는 날로 엄중해지고 수시로 무너져서 호태왕비에 위협이 미칠 우려가 있었다. 1976년 9월에 낡은 비석정을 철거하기 위한 허락을 받게 되어 새 비석정을 세울 준비를 하였다.

길립성 건축설계원과 집안현 문물관리소는 건설주관부서과 함께 현장을 탐사하고 정황을 분석한 끝에 현지의 기후, 풍향, 일광, 강우 등 자연조건이 충분히 고려된 큰지붕 4각 찬첨식의 새 비석정 도면이 설계되었다.

1982년 5월 10일 호태왕비 새 비석정 수건(수퇴(修退))공정이 시작되었다. 공정은 콘크리트 정체도제(程體搗制) 방안을 취하였다. 12개의 모난 기둥, 기둥기초 및 방(坊), 들보(梁(樑)), 처마 등 모두 콘크리트를 전체적으로 주입하였다. 공정기술인원들과 인부들이 모든 힘을 다 내어 협작하였으며 질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견지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였으며 그해 11월 10일 보호각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저명한 고고학자인 하내(하(夏)내)가 호태왕비를 위해 편액을 쓰고 이어서 호태왕비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민가를 이사시키고 담장, 정원 및 관리사무실 한동을 건립하였는데 제반 공사가 1983년 9월 마무리되었다.

호태왕비는 하나의 천연적 강력옹회암의 석주를 조금 닳고 쪼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석질은 화강암보다 성기고 성형(成形)이 좀 못함으로 닳고 쪼고 새기는데 아주 많은 공력을 드려야 한다. 이 비문의 적각은 방정하고 필획은 공정하고 글체는 단정한데 주로 한대의 예서로서 장법이 아주 훌륭하다. 글자 글행 사이에 세로 새기는데 계격(界格)배치가 아주 엄밀하다. 비석표면형상은 장구형에 가까웁고 그리 규칙적으로 정연하지 않다. 그러나 매면의 글자는 가로 세로 줄을 지었는데 규칙적인 ←구형을 이루었고 매행의 제일 마지막 글자는 비석기저에서 25cm 쯤 된다. 이는 1500여년전에 이렇게 새겨냈다는 것은 실로 쉬운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에 이르도록 보존된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특히 근백년에 불을 사르고 이끼를 제거하고 석회를 바르고 맹목적으로 두두려 탁분을 하고 거기에 비바람에 발가지고 이즈러지매 비교적 엄중한 손상을 받았다. 목하비석표면의 문자보존이 어떠한지? 두드려서 비교적 훌륭한 답본을 만들어 내어서 연구에 제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것은 허다한 중외학자들이 더더욱 관심하는 일인 것이다.

최근에 우리는 추탁인원(推拓人員)들과 함께 비석옆에서 자세히 고찰하여 옛 비석의 현상 및 매면의 비문보존정형을 체계적으로 관측기록하였다.

호태왕비는 높이 6.39m, 폭면의 넓이는 일정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관계 수치를 측정해 내었다.

넓이(m) 면		제1면	제2면	제3면	제4면
향					
밑부분		1.43	1.34	1.97	1.43
꼭대기부분(문자있는 곳)		1.61	1.00	1.95	1.00
제일 넓은 곳	위치	꼭대기 비문 제1, 2글자 있는 곳	아래로부터 1.60	아래로부터 4.00	아래로부터 3.00
	너비	1.61	1.44	2.00	1.45
제일 좁은 곳	위치	밑부분	꼭대기부분 제1,2글자 있는 곳	아래로부터 2.00	꼭대기 부분 제1,2글자있는 곳
	너비	1.43	1.00	1.93	1.00

제1면 비문11행, 행의 넓이 12.5~14cm, 글자 넓이 1.39m, 매행에 41자, 제6행 하부의 원문에 빈글자 2자, 도합 449자

배면이 제일 울퉁불퉁하다. 오른쪽 1.20m 되는 곳에서부터 점차 아래로 오목해져서 2.70m 되는 곳에 오목한 것이 제일 깊은 곳은 15cm이다. 매글자의 크기는 8.0cm × 9.5cm 쯤 되고 글자획의 깊이는 0.3~0.5cm 사이이다. 표면이 발가져 으즈러진 것이 다른 면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심한편이며 대부분의 글자, 특히 중하부의 것은 비교적 똑똑하여 알아볼 수 있다. 제1행의 35~39자, 제5행의 제13, 26자, 제6행의 제14, 15자, 제7행의 제15, 16자, 제8행의 제17자, 제9행의 제15, 16자, 40, 41자, 제10행의 제18~20자, 41자, 제11행의 제18~23, 33~36, 40, 41자 등등은 일찍 불로 사를 때 튀어 떨어졌거나 탈락되어 글자가 부서져 손상을 보았거나 글자의 판독해 낼 수 없는 것이 도합 33자가 있다. 이면에서 알아볼 수 있고 글자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래도 416자나 된다.

그가운데서 어떤 것은 추탁하고 획을 그리는데서 잘못된 해석을 조성한 것으로서 지금도 가히 똑똑하게 가릴 수 있는 글자를 보면 제1행의 제26자까지를 구석(舊釋)에서는 “부란강출생자유성구(剖卵降出生子有聖久)”¹²⁾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부란강세생이유성덕(剖卵降世生而有聖德)”인 것이다. “세(世)”자는 비교적 똑똑하고 “이(而)”자와 “덕(德)”자는 자세히 살펴보기만 하면 식별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제7행의 제9~23자 까지를 지난 해석은 “왕이패려불□□□궁울주토거부산(王以稗麗不□□□躬率往討巨富山)”¹³⁾이라고 했거나 “왕이려불식□우궁울왕토과부산(王以麗不息□又躬率往討過富山)”¹⁴⁾이라고 했는데 지금 비문은 똑똑히 식별할 수 있는바 “왕이패비려불귀□□궁울왕토과부산(王以稗碑麗不龜□□躬率往討過富山)”이다.

제8행의 제10~14자의 구해석은 “인과가평도(因過架平道)”¹⁵⁾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인과양평도(因過襄平道)”이다.

제10행의 제2~6자를 많은 이들은 흔히 “공취일팔성(攻取壹八城)”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비문을 살펴보면 “공취영팔성(攻取寧八城)”이다. “영(寧)”은 번체자로서 비교적 똑똑하다.

설명해야 할 것은 제5행의 제13자, 제6행의 제14,15자, 제7행의 제15,16자, 제8행의 제17자, 제9행의 제17~19자, 제10행의 제18~20자, 제11행의 제18~23자는 우로 기울어진 한갈래이 붕렬대(崩裂帶)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불로 사를 때 조성된 제일 큰 흔적으로서 지난날 초(初)씨 부자가 황토사적으로서 채우고 위에 석회를 발라 놓았던 것이다. 1965년에 잡물을 제거한 다음 화학약제로서 부서진 들짜개를 붙이고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수식하여 옛것으로 만들어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거의 보아낼 수 없다. 이 1면과 제2면으로 굽어진 곳에 길이 60cm 되는 것을 붙이고 보수하였는데 오늘에 와서 글자를 찾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로 사른 후에 갈라진 틈이 있는 탁본은 위에 열거한 각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글자가 없을 것이고 설사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다고 하는 수곡(水谷) 탁본 역시 16자가 비어 있다. 제9~11행 최하단의 5자는 일찍이 부스러졌으므로 현재로서는 더 찾을 길이 없다. 제2면 비문은 10행이고 행의 너비는 13.0~13.8cm이고, 글자면의 너비는 1.35m이다. 제9, 10 두행의 상부는 비석의 자연결손으로 인하여 원래 새길때 각각 7자 16자 좌우가 비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매행의 41자이다. 이면의 비문은 원래 387자로 파악되었다. 이면의 비석표면은 반반하며 문자는 비교적 똑똑하고 행간의 세로로 그어진 선은 수직이며 고르고 선과 선사이는 13.0cm 좌우이며 글자체는 크기가 9cm × 9cm 쯤된다. 표면의 문자는 대개다 식별할 수 있으며 좌측이 더욱 명확하다.

그중에서 제1생의 제17~21자, 제2행의 제15~21자, 제3행의 제12~16자, 제5행의 제13자는 일찌기 불사를 때 튀어 갈라져 탈락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글자를 확인할 수 없다.

제2해의 제27자, 제10행의 제30~40자는 풍화되어 부스러진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제3

12),13),15)16),18),20),21),23) 나진옥(羅振玉)의 <고구려호태왕비석문(高句麗好太王碑釋文)>, <신주국광집(新州國集)>, 제9집 제3호

14),17),19),22),24) 水谷杆郎 <好太王碑考>,<서품(書品)> 100호(1959년 6월).

행의 제40, 41자, 제4행의 제41자, 제9행의 제41자는 비록 부분적으로 탈락도 있지만 그래도 주요한 필획은 식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식별해 볼 수 있는 글자 수가 357자 좌우된다.

일부 과거에 해석 못한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글자 얻어낼 수 있다. 예를들면 제3행의 제1~8자를 지난날의 해석은 “성□□□□라성(城□□□□羅城)”¹⁶⁾이라고 하거나 혹은 “성□□성□□(城□□城□□)”이라고 했는데 지금 식별해보면 옹당“성증발성종고노성(城曾拔城宗古廬城)”¹⁷⁾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제3행의 제40, 41자~제4행의 제1~6자는 구 해석에는 “횡□□□□편국성(橫□□□□便國城)”¹⁸⁾이라고 해석했거나 혹은 “횡□□□□편□성(橫□□□□便□城)”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가히 식별할 수 있고 “잔병귀혈취편위성(殘兵歸穴就便圍城)”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귀혈취(歸穴就)”, “위(圍)”등 여러 글자는 비록 부서져 이즈러졌지만 필획은 가히 판별해 이면의 상부 중간이 약간 요철(凹凸)현상이 있으며 상하의 폭도 넓이가 비교적 고르다. 밑으로부터 2m 되는데가 약간 좁아서 1.93m이고 그위는 1.95~2.00m 좌우로서 비교적 정연한 장방형을 보여준다. 글자의 크기는 9cm × 9cm 쯤 된다. 전반 문자는 제1면에 비하여 똑똑한데 오른쪽 가운데가 더 똑똑하다. 왼쪽 꼭대기 부분, 밑부분 및 제1행의 손상 결여는 이 비석에서 문자의 결여 손상이 제일 많은 면으로 되게 하였다. 제1행 제27, 39, 41자를 아직 식별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의 것은 모두다 희미하고 부스러 떨어졌다. 제2행은 제1~4자, 제21~25자, 제32~39자, 제3행은 제1~4, 제21~25자, 제28자, 제31~39자, 제4행은 제1~3자, 제32~40자, 제5행은 제1, 2자, 제32~41자, 제6행은 제1자, 제36~41자, 제7행은 제1,2자, 제37~41자 등 도합 112자가 결여 손상되어 실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도합 462자이다.

그중에서 수곡(水谷) 탁본 석문(釋文)에서 비어놓고 해석하지 않은 것으로서 예를 들면 제9행의 제40자, 제10행의 제9, 16, 32자 : 제12행의 제33²²⁾자, 비석면은 다 식별할 수 있다. 아직도 일부 묘지기 연호(煙戶)~국연(國煙)에서 연(煙)의 수자가 제가의 석문은 각기 다르다. 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식별할 수 있다. 다만 풍화하여 부스러 떨어져서 공극이 흐리어 졌을 뿐이다. 예를 들면 제14행의 제28~30자, 제37~39자를 나진옥(羅進玉)은 “국연이(國煙二)”, “국연육(國煙六)”이라고 해석했으며 수곡(水谷)은 곧 “국연일(國煙一)”, “국연일(國煙一)”²⁴⁾이라고 해석한 것과 같은 것들이다.

제4면 비문은 9행이고 행의 넓이는 12.5~13cm이고 글자면의 넓이는 1.17m이다. 제1행이 시작되는 머리에 비석이 자연 결여 손상되어 새기여 쓸 때 4자 거리를 내놓고 새기기 시작하였는데 이행은 본디 37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41자로서 이면의 비문은 원래 365자이다.

이면의 비석면은 비만하고 튀툼이 비교적 작고 문자를 제일 잘 보존하고 있으며 글자와 글자 사이의 세로 된 칸 역시 아주 똑똑하다. 자세히 고찰해보면 호태왕비의 방위정면(제1면)은 동남쪽을 향하고 이 제4면은 곧 동북쪽을 향하였다. 이른 아침에만 햇빛이 잠깐 비스듬히 스칠 뿐이며 거기에다 집안(集安)일대는 동북풍이 아주 적다. 불로 사를 때에도 이면은 바람을 등지기에 받은 손실이 비교적 작다.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하여 비석면의 문자는 아주 잘 보존되었다. 제1행 머리의 “칠야이성(七也利城)”이란 4자를 내놓고 오른쪽이 약간 발가져 이즈러진(그러나 식별할 수 있다)외에 그 나머지의 각행의 문자는 아주 또렷하다.

4면을 통틀어 셈하면 호태왕비의 비문은 본래 1775자인데 비교적 잘 보존되고 식별할 수 있는 글자는 모두 1600자 좌우이다.

4.

건국 이후 35년 이래 국가와 지방의 문물주관부서는 호태왕비의 보호사업을 중시하였다. 선후로 대량의 인력물력을 투입하여 보수보호를 실시하여 일련의 좋은 성과를 취득하였다. 즉 아름답고 장엄한 비석정을 새로 세웠으며 보호범위를 확대하였고 환경을 미화하고 개선하였다. 정밀 관측 기록하고 터진 틈과 부스러져 떨어지는 변화상태를 파악하고 성공적으로 화학점착, 관장, 봉폐보호를 하였으며 옛 비석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계획적으로 비문 추탁(推拓) 사업을 조직하였으며 1965년 제1차 보호처리후로 북경의 장명선(張名善), 집안의 주운대(周雲臺) 등이 선후로 6분을 탁제하였으며 탁본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방지하였다.

이제까지 호태왕비의 보호사업은 이미 비교적 이상적인 성과를 거두어 호태왕비로 하여금 일정한 시기안에는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토대위에서 집안현 문물관리소에서는 비석표면, 기초돌 제방면의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있으며 더우기 비석 표면에 궁굴고 부스러져 떨어지는 등 정형의 변화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호태왕비 보호중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과제를 탐색하고 있다.

광개토대왕비 보호각(廣開土大王碑 保護閣) 광개토대왕비신(廣開土大王碑身)(남측) 회가만십간 □□□□ 성병(回架万什杆□□□□城兵)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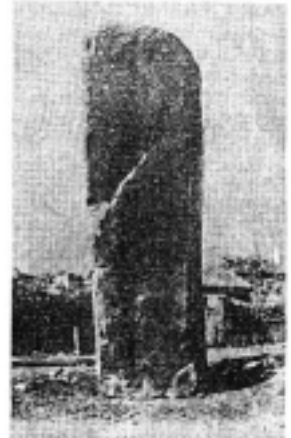
好太王碑的保护与现状

耿铁华

好太王碑是高句丽第二十代长寿王为其父“广开土陵平安好太王”树立的纪功碑。晋安帝义熙十年(公元四一四年)立于国内城(今吉林省集安市城)东北即公署处。经历了自然界和人类社会的风雨历程,至今已在新疆矗立了一千五百七十多年,它被重新发现、发现和研究,亦有一个世纪了。许多中外学者、专家十分关注好太王碑的保护与现状,因此,我们将有关情况报告如下。

中, 拯救相当困难。因此, 按捺苦囊成了发现古碑的一大难题。起初用马粪涂抹碑面, 待粪干后用火焚之, 苔藓被除掉, 露出碑刻, 却即崩坏(图一)。这是好太王碑发现前遭到的一次严重破坏(见注释①、②、③、④文)。据调查, 好太王碑附近居住的初天童(所知始建1847—1938), 至少在一八八三年(光绪九年)就开凿了碑中。

光緒初年, 人们在宽甸县发现了好太王碑^①。这里北倚高山, 东为龙山, 山坡较平缓, 杂草树木丛生, 人迹罕至。“碑面为苔藓覆盖”^②。清末民初的一些学者叶昌炽、谈国桢、张冠卿等都记录了好太王碑发现之初为青苔覆盖的情况^③。五十年代、八十年代先后访问居住在碑旁的老人的记录中, 也都有过去“碑上青苔很老厚”, “碑身长满青苔”的回忆^④。这些均符合实际情况的。好太王碑系角砾岩修琢而成, 石质疏松, 表面凹凸不平, 极易生长青苔。这些青苔属于蕨藻(Auracoum)和灰藻(Hyphom)类, 多是黑色或灰黑色, 生长在潮湿的花岗岩和各种阴湿岩石上、木头上, 生命力很强。这些厚厚的苔藓几乎封住好太王碑碑面, 隔绝了千年的风吹雨淋, 多少防止了碑面的风化, 使古碑得到了一定的庇护, 可以想见, 厚层的苔藓几乎完全掩盖了碑上的文



P 355

25) “보존이 비교적 잘 되고 아직 식별할 수 있는”것의 숫자는 비석표면에서 현존하는 문자상향으로부터 이야기하는 말이다. 제가들이 이전이나 금후의 상고해석해 낼 숫자가 혹시 차이가 있다해도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